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잡상스럽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잡상스럽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잡상스럽다

완성된 이름

잡상스럽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잡상스럽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잡되고 상스러운 데가 있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잡상스럽다	-	-	-
잡상스럽다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잡되고 상스러운 데가 있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3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잡상스럽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잡되고 상스러운 데가 있다.

☞ 잡상스럽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잡상스럽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잡상스럽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잡상스럽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잡상스럽- 문헌 수록 표기	—	—	—	—	●→	—
잡상스럽-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잡상스럽다
19세기
- 잡상스럽다

↳ 잡상스럽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잡상스럽다’의 옛말인 ‘잡상스럽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잡상스럽-’은 한자어 ‘雜常’을 한글과 표기한 ‘잡상’과 접미사 ‘-스럽-’이 결합한 것이다.

↘ 소리와 발음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가 ‘ㅈ, ㅊ, ㅌ, ㅍ’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잡상’이 ‘잡상’으로 바뀌어 20세기에 ‘잡상스럽-’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잡상스럽다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잡상스럽-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잡상스럽-

출처 1880 한불사전 528

용례 01

66 문헌 용례

잡상스럽다 [雜象].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잡상스럽-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잡상스럽-

출처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2

66 문헌 용례

잡상스럽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7 큰사전

용례 03

66 문헌 용례

잡상스럽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잡상스럽다에 관한 주석

20세기에는 ‘잡성스럽-’도 보이는데, 19세기에 보이는 ‘잡상스럽-’에서 제2음절 모음이 바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예1] 정실로 백년을 검은 머리가 파 뿌리가 되도록 수실 터인디 그리 잡성스럽게 구러 쓰겠소[현대어 역] 정실로 백년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실 터인데 그리 잡상스럽게 굴어 쓰겠소[예2] 그런 잡성스러운 말 그만두고 이것이나 후더니 한 사발이나 되는 술을 따라놋코[현대어 역] 그런 잡상스러운 말은 그만두고 이것이나 하더니 한 사발이나 되는 술을 따라 놓고

잡상스럽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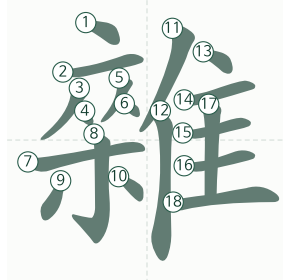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잡상스럽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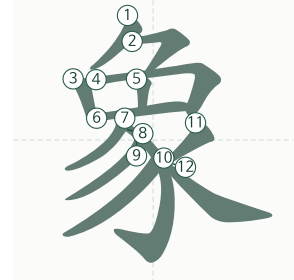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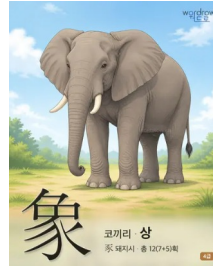
뜻·음 섞일 잡
총 18획 · 부수 隹



hanja.wordrow.kr/한자/雜/

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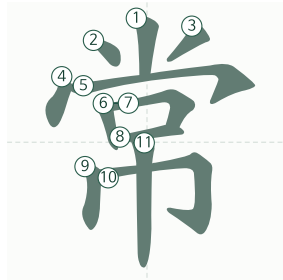
뜻·음 코끼리 상
총 12획 · 부수 豕



hanja.wordrow.kr/한자/象/

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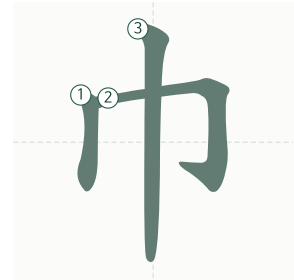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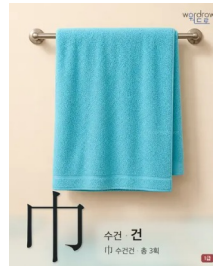
뜻·음 땃땃할 상
총 11획 · 부수 巾



hanja.wordrow.kr/한자/常/

巾

뜻·음 수건 건
총 3획 · 부수 巾



hanja.wordrow.kr/한자/巾/